

어떤 간호원



이 성 우
(醫學博士 · 보사부 의정국장)

현대는 사회, 산업, 과학혁명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인구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특정 질환의 발생 억제에 성공,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교육 기회의 부여, 경제적 사회적인 이동성 증대,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의 증가, 자동장치의 개발등 갖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의료분야중 간호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간호분야에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Mass Medical Care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변형에 따라 내일의 간호원은 전례없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하는 간호제도의 자그만한 변형만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 온지도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독일의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쇄속하에서 일본 제도를 그대로 물려 받은데다 1945년 이후 갑자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들어와 의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고려하지 않고 질병 중심으로 발전하여 환자나 환자 가족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특히 일본의 의학발달의 역사중에서 의과대학

에서의 의학교육의 내용이 학생에게 의학을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환자의 간호를 잘 한다는 서비스는 가르치지 않은 그릇된 방향 때문에 의과대학의 교육이든 잘 비는 의사들 양성하는 양성기관으로 전락하여 버렸으며 병원에서는 진단의 방법이나 수술의 기법에 우선 관심이 기울여지고 그 연후에 치료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환자나 환자의 가족을 어떻게 교육하면 질병이 예방된다던가 어떻게 하면 특성 질환이 변화되지 않고 그 질환을 지닌 채 오래 살 수 있게 하는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의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경시하여 발생된 질병에 대한 예방과 같은 일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행적인 의료의 발전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원의 관계는 간호원은 의사의 심부름꾼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늘의 의사, 간호원의 역할분담에까지 승격하였으나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의료인간에 지금까지 지녀온 권리를 주장하여 타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분과주의를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여 온 것을 우리 이외의 다른 자도 할 수 있게 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그 일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

뜨한 그러한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환자라던가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처리를 위하여 Problem Oriented System으로 의료가 제편성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의학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며 지역사회 요구에 맞추어 간호가 어떻게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를 간호원들은 생각하여야 한다. 의료인중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나 이들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발병하였다던가, 폐렴에 걸렸다던가, 외상을 입었다던가 하는 episode의 처리만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건강유지나 질병의 예방, 더 나아가 나올 수 없는 만성질환이나 신체불구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care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할 의사나 간호원을 확보하는가 문제이다. 간호계는 또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요구에 맞추어 간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간호원은 자기의 일을 어떻게 넓히고 확장하여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던 일의 일부는 간호원 이외의 직종에 맡길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단 백지로 돌아가 환자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누가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체부자유아의 간호는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시키면 전문 간호원보다 더 잘 하며 배뇨관관환자의 아내는 자기 남편의 배뇨 처지를 간호원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바 매일매일의 일의 반복으로 숙달되었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의 교양이 있으면 지식도 기술도 경험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들 부인의 지식이나 기술은 학교를 갓 나온 간호원에 비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의사이전 간호원이건 학교를 졸업한 후 연륜이 쌓이면 실력은 올라가지 않아도 배짱만 늘게 되는 수가 많

다. 그러나 성의를 가지고 간호하는 환자의 가족의 생활 지혜에는 당하지 못한다.

전문인이라 무엇인가?

의사는 졸업 직후에는 심음도 잘 구별할 수 못하지만 3년, 5년이 지나면 잘 구별할 수 있게 된다. 1년차의 외과 의사는 겨우 충수염의 수술밖에 못하던 것이 5년째 되면 위암의 수술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습의 목표가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호원의 경우에는 졸업후 연수의 목표가 뚜렷하게 서 있지 못하다. 졸업한 지 3년 지난 간호원과 6년 지난 간호원이 어디가 다른가? 졸업 후 간호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도달목표가 없기 때문이며 발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이르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북미지역에서는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병원이나 대학에서 간호원이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진료를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건반사도 보고 안저 검사도 하고 심음도 듣는다. 여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 그곳에서는 의사와 간호원의 일이 중복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서둘러서 보게 되면 너무 바빠서 환자와 대화도 못 나눈다던가, 환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더 차분히 상담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가 하여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간호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와 함께 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간호원을 위한 진단학 책도 출판되어 있다.

간호원은 의사보다 더 환자쪽에 선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에게는 말할 수 없으나 간호원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데이터로서는 심음도 듣고 호흡음도 듣고 배도 만져 보고, 건반사도 보아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을 간호원이 함으로써 토요일에 일어난 일을 월요일의 의사의 회견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곧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은 간호 기

☞ 미래간호교육을 위한 정책세미나

록에 적어두면 월요일에 의사가 와서 이것은 이상하다던가, 빠르게 평가되었다던가, 알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로 맥박과 체온과 호흡수만 기록하는 일은 간호원이 아닌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의 임상간호에서 Vital sign은 고도로 발전된 기계로 고도의 테크닉으로 측정, 이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간호원은 의사가 믿을 수 있는 data base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data base를 기초로 평가하여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 대신 지금까지와는 다른 책임이 주어지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충분히 알고 자기의 영역을 잘 분간할 필요가 있다.

간호는 일반적인 기본간호 외에 구급간호라던가 수술의 간호라던가 CCU, ICU 등 여러 전문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학교간호라던가 지역간호등 지속적인 간호등 분야를 들 수 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하여도 극히 고도로 발달된 기기를 사용하는 CCU, ICU, 무균성 수술의 care

로부터 보다 단순한 병이나 수술의 care, 감각 결된 어른, 어린이의 care 같은 것으로 각각 3차, 1차로 나눌 수 있다.

병원의태의 의료에 대하여 개인 각자의 care를 하는 부분이 많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키는 것과 같이 자기 생명이나 자기 가족의 건강은 자기 스스로나 가족이 지킬려고 노력하면 질병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계율하기 때문에 모두가 병원에 입원하고 또 병원에 환자가 넘치는 것이다.

각 개인의 책임하에 개인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회전반을 교육하는 의도인이 필요하며 한편 유전이나 체질, 노화의 원인 등에 대하여는 개인의 노력의 효과는 거의 없고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성과를 기다릴 뿐이다.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여 보아도 어쩔 수 없다. 이는 정치가나 경제학자, 행정가가 해결하여야 할 일이므로 이들 여러 분야에로 눈을 돌리는 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